

‘의무’에서 ‘자부심’으로…시선 바꿔는 병역 풍경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현장

키오스크 활용 신분증·본인 대조…대리 수검 방지 첫 현역 1급 전현수씨 “좋은 자랑거리·자부심 가득”

“자랑스럽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병역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때 병역은 피하고 싶은 부담이자 경력의 공백으로 인식되곤 했지만, 최근 검사 현장에서는 ‘성실한 이행’과 ‘당당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청년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15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현장. 2026년 병역 의무 대상자(2007년생)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첫 현역 1급 판정자 전현수씨(19)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다”고 밝힌 장면은 병역 인식 변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신분증과 얼굴 인식을 결합한 키오스크 본인 확인 시스템

은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검사 단계마다 반복되는 본인 인증은 번거로움보다 ‘공정함에 대한 확신’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과거 병역 제도에 대한 불신은 청년들의

냉소로 이어지기 쉬웠다. 그러나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검증 절차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병역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겁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제다.

또 하나의 변화는 병역을 대하는 태도다. 무작정 미루거나 피하려 하기보다, 학업과 진로를 고려해 병역을 계획적으로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내

입영이 가능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

도입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청년들은 군 입대를 인생의 중단이 아

닌 일정한 단계로 편입시키고 있다. 대학

진학, 휴학, 입대 시점을 스스로 조율하며

병역을 삶의 경로 안에 배치하는 방식이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국 11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국 11개 검사장에서 실시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물 07:40 일풀 05:47
해진 17:44 일진 15:07



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역병

만년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습한 20

대군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

법원 11단독 김성준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23년 7월 5일 경

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원에서 만

난 피해자로부터 1720만원을 받

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3월

14일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

던 상태였다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

이어 “단번 편취액에 비해 엄은

범행 이득이 크지 않고,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총 4차례 압수수색…피해자·유가족 2차 가해 수사도

이진철 부산항공청장, ‘콘크리트 둔덕’ 부적절 인정

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철 부산항공청장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공항 내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시

인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여객기 충돌량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달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제작자의 현장 조사 이후 설계가 변경되며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제

작자의 현장 조사 이후 설계가 변경되며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제

작자의 현장 조사 이후 설계가 변경되며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2003년 제